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8



VOL. 218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Your dream can come true
with PT.SERIM Indonesia*



Fill the difference with PT.SERIM'S GREEN FOAM & ECO FOAM



PT. SERIM INDONESIA

Medan factory

Cirebon office

Tel. 021) 547-6453-8
Fax. 021) 546-2739/ 546-6601

Tel. 061) 6874-3330-1
Fax. 061) 6874-3332

Tel. 0811-962-8993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동중 인도네시아는

1 22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당사1공장 내부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 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한그루, 한그루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어가듯
충실한 도약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Men & Ladies

HEAVY CASUAL JACKET and PANTS



PT. UNGARAN INDAH BUSANA

(EXPORT-IMPORT & MANUFACTURE)

3rd Floor SATMARINDO Building, Jl, Ampera Raya No.5, Cilandak

Jakarta Selatan 12560-INDONESIA

Tlp.(021) 7800820, Fax.(021)7805823

동성그룹은 고객과 사회를 생각하는
Green Partner로서
 더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합니다




▪ (주)동성홀딩스

▷ 동성그룹 지주회사(주권상장법인)

- 그룹 Vision 및 성장 전략 수립 · 추진, 경영 인프라 구축 · 정비
- 상장 법인 동성화학, 동성하이켄, 동성화인텍을 포함하여 국내 7개, 해외 5개의 자회사 운영

▷ 주요 핵심사업 : 화학부문, 그린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등

동성그룹 회장 **백 정 호**

 주요그룹사

국내 네트워크

- (주)동성화학 폴리우레탄 제조 및 멜라민 등 고기능성 화학소재 제조
- (주)동성하이켄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및 정밀화학 제품 제조
- (주)동성화인텍 LNG용 초저온 보냉제, 환경친화용 신냉매, 건축용 단열제
- (주)제네웰 창상피복용 생체재료 전문기업, 유착방지제 등 바이오메디컬 device 개발·제조
- (주)동성에코어 신재생에너지 부문 페타이어열분해 오일화(오일, 카본블랙) 사업

해외 네트워크

- Guangzhou Dongsung
- Dongsung Vietnam
- P.T. Dongsung Jakarta
- US동성홀딩스, US동성에코어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색상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해외체류자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해외여행예정자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해외체류자 : 즉시 대피, 철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 금지

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특별여행경보 2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행경보 신호등' 확인 해외안전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1. 외교부는 7.8(화)부터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 여행경보제도 :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

2. 새로이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집니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 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 변경되는 제도와 집단별 행동 수칙

	해외체류자	해외여행예정자
남색경보 (여행유의)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 (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 (여행금지)	즉시 대피, 철수	여행 금지

3.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체주, 말루꾸주, 중부 술라웨시주, 파푸아주 등 4개 주가 황색경보(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전 지역은 남색경보(여행유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외교부는 또한, 경보 신호등 제도와 더불어 '특별여행경보제도' 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하여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 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이며, 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 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 로 이루어집니다.

5.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 10

이모저모 한인사회..... 12

논설위원 칼럼/ 차세대 < 김문환 >

조태영대사, 신임장 제정 축하

김우재 옥타회장 반기문UN 사무총장 예방

제1기 글로벌 CEO전문과정

7월 23일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한-ASEAN 25주년 기념 현대 미디어아트전

스마트센터 건립 관련 협력방안 논의

KOICA 한,인니 사이버 보안 세미나2014

반동지역 상수도 시스템 구축 보고회개최

인니문화를 통해 본 우리의 정체성



Gunung Rinjani
Nusa Tenggara Barat (NTB)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인터뷰를 하다보면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사람의 영역이라기 보단 신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확한 판단프로젝트'가 선발된 예측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개방성과 자신의 단점을 잘 파악하는 자기인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니

평범한 우리 안에 미래 예측 능력이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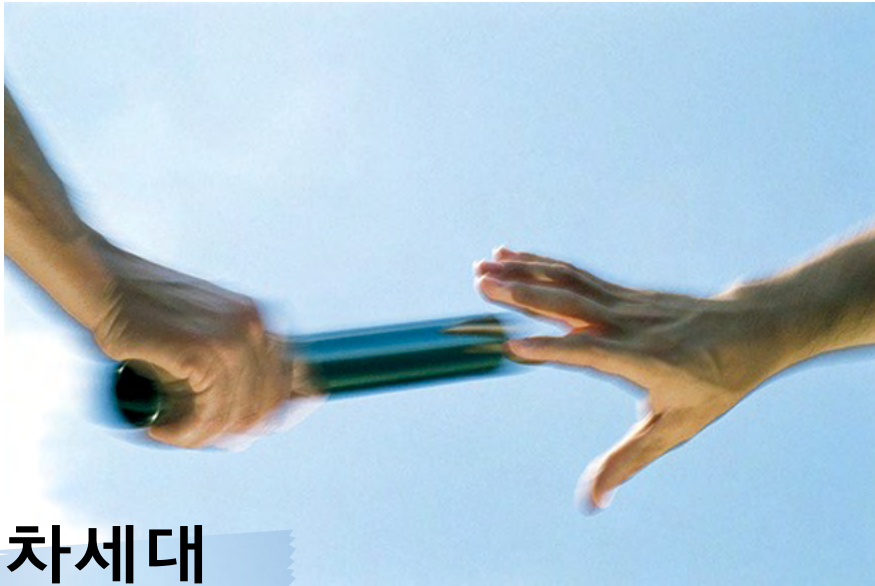
편집장 홍석영

포토뉴스	Jalan-Jalan Jakarta / The Mesjid Istiqlal
시간안내	<사공경>.....46
제 61차 재외동포 포럼	내 마음의 뜰/ 진작 그럴 걸
2014 인도네시아 르바란 이모저모	<시:김성월/그림:이태복>.....51
2014년 7월 월간 경제 브리핑.....28	신성철 칼럼.....52
김종림 KOGA회장과과의 인터뷰	법률해설/
<편집부>.....32	한국인 근로자의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지위
(생활 속 심리학) 분위기와 맥락,	<이승민>.....54
그리고 의사결정 <김경일>.....34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문화탐방기 <김현미>.....37	<허영순>.....60
행복 에세이<서미숙>.....40	화 도 소62
풍경과 사람/FREEDOM <엄종한>.....43	생활정보
인도네시아 약용식물/살락 <백진협>.....44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운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김문환/논설위원

대사관 본관 로비에 들어서면, 오른쪽 접견실 양쪽 벽면에 한국-인도네시아 외교관계 및 초창기 한인진출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장의 기록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 빛 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국인학교 제1회 졸업식’이라는 장식어를 배경으로 세 명의 여자 어린이와 한 명의 남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들고서 있다. 1980년 2월 2일 촬영된 그 사진 속 네 명의 주역 중 유일한 남학생인 B 군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부친의 사업을 도와 중견사업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6명이 졸업한 2회 졸업생 중엔 현재 서울음대 피아노전공 교수인 S 양, 9명이 졸업한 3회 졸업생에는 인도네시아에서 IT기업인으로 성장하며 한인차세대를 주도하는 K 군이 이름을 남기고 있다.

지난 6월 초, 재인도네시아청년회(회장 김종원)가 라와망운한인시니어클럽(회장 이현상)을 찾아 한인 1, 2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1세대 개인사업가인 K 회장, L 회장의 자녀분들이 함께 자리하여 세대간 거리를 좁혀주는 뿌듯한 장면을 연출하였다.

7월초 자카르타 그랜 멜리아호텔에서 열린 옥타(OKTA) ‘차세대무역스쿨’은 벌써 7년째로 접어들며 50명 정원에 두 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재인도네시아 청년기업인 및 창업준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은 ‘모국방문교육’으로 이어져 차세대에 대한 한민족정체성 확립과 본국과의 교류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7월 말 심윤조 의원이 주도하는 ‘차세대시대 정책토론회’가 여의도에서 열려 한인대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인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 양국간의 교류가 전무하고, 불모지나 다름없던 허허벌판에 뛰어들며 시동을 걸 때, 벌써 백 년 이상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던 중국, 일본이라는 거인과 맞닥뜨려야 했다. 우리의 개척자들은 위촉되지 않고 한국인 특유의 투혼을 살려 터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초창기 진출기업들의 주업종인 ‘산림개발’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깔리만판, 수마트라 정글 속으로 뛰어 들어야 했다. 원시생활과 다

름없는 생활여건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근무자들은 1,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듯이 귀국길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안전사고로 인해 이국 땅 그곳 적도에 묻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한인진출시기를 ‘제1의 물결’이라 부른다면, 1980년대 말 노동집약산업과 전자업을 필두로 한 기술집약산업의 진출은 ‘제2의 물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2의 물결은 한인사회의 팽창을 가져온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노사분규로 인해 한때 한인사회의 품격이 손상되는 국면에까지 이르렀으나, 마침 불어 닥친 ‘IMF사태’를 전화위복의 방편으로 삼아 관민합동의 노력에 힘입어 이를 극복하고 성장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지금 이들 산업은 외화가득이나 고용효과 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 못할 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개혁과 민주화 시대를 맞아 한인사회도 2,000년대부터 진출업종이 다양해지는 국면을 맞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종전 굴뚝산업의 틀을 벗어나 서비스, IT, 유통, 창조산업 등으로 다변화 되며, 바로 차세대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요즘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자카르타 시내 식당에 들어서면 낮이 익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과 신세대 여성직장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차세대 러시’에 부응하여 국가기관과 한인사회도 차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필연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제 우리 한인사회는 차세대 및 여성사업가들과의 소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때이며, 이들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포애를 발휘하여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제6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초청안내문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는 날이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광복 69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8.15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모두 참여하셔서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8월 15일(금), 오전9시

장소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Jl. Jend.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유의사항

-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동포 분들께서는 8.5(화)까지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를 대사관 대표메일 (koremb_in@mofa.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동포 여러분께서는 여권 또는 신분증(한국 운전면허증, KITAS, KITAP, KTP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인도네시아 조태영대사 신임장 제정 축하

6월 21일 재 인도네시아대사관 1층 강당에서 조태영 대사의 신임장 제정 축하행사가 한인회 인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태영대사는 “유도요노 대통령께 신임장을 내기 전에는 제한이 있던 대사로서의 활동에 족쇄가 풀리고 완전한 대사가 되는 날이다. 신임장을 전달할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도요노대통령께 대사로서의 포부를 말씀 드렸다. 과거 10년 동안 양국 정상 12번 상대국을 방문했다. 7번은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5번은 인도네시아 정상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를 뜻한다고 유도요노 대통령께 말씀 드렸더니 유도요노 대통령도 동의하셨다. 그 12번의 숫자는 오직 상호방문만을 카운팅한 수인 만큼 대단한 숫자이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시고, 영부인께서도 한국에서 10년 정도 살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대사로서 맡은 임무를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 여기 지도자 분들과 회의를 많이 해서 조율과 소통을 하길 원한다.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열린 자세로 서로가 일을 진행해 갔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두 달 밖에 안 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고용을 창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지도자 분들과 서로 협의해가면서 한인사회의 좋은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업 회장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인동포사회의 권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대사님께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대사님 사랑합니다!’라는 건배사를 외쳤다.



조국 대한민국 사랑 삶의 터전 인도네시아 사랑

학생들이 외쳤습니다 !!!

제64주년 6.25행사 및 북한인권 사진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디아콘 2014년 6월 19일 ~ 6월 24일

- * 북한인권 문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
- * 북한인권 문제 우리가 도울 수 있다 !
- * 한반도를 위해서... !
- * 위대한 국가는 지난 역사를 잊지 않는다 !

평화통일

6.25전쟁 · 현충일 · 이산가족 · 꽃제비 · 탈북자

6월은 애국의 달 ! 나라사랑의 달 !

나라 사랑, 한빛 사랑, 한글 사랑, 자연 사랑

사랑을 나누는 사람

KFF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KOREA FREEDOM FEDERATION INDONESIA BRANCH

UN NGO

월드옥타 김우재 회장 반기문 UN사무총장 예방



세계한인무역인협회 김우재 회장 부부가 지난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한인무역인협회(World OKTA) 김우재 회장이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 북미주한인경제인대회를 참석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12일까지 이틀간 미국 뉴저지 포트 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2014 북미주 경제인대회'에서 김우재 회장은 "한인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계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기 글로벌 CEO 전문과정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송창근)는 한국외국어대학교(경영대학원 원장 권석균 교수)와 공동으로 ‘제1기 글로벌 CEO 전문과정’ 입학식을 코린도 건물 12층 강당에서 열고 6주간의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글로벌CEO과정’은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전략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고의 글로벌 CEO 과정을 보유한 한국외대 교수가 강의하며, 글로벌 CEO 과정 수료식에는 한국외대 총장이 참석한다.

교육 과목은 △조직과 인사관리 △마케팅 관리 △전략경영 △회계와 가치경영 △재무관리 △인도네시아 문화의 원형 △리더십과 변화 경영 등 각 과목당 9시간 총 63시간 강의를 진행된다.

권석균 교수는 미주의 성공사례를 설명하며 “최고경영자 과정의 진정한 목적은 해외 동포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 한민족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교육 과정이 지식 함양을 넘어 상호 간 비즈니스 동반자



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현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은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권해란 조교는 “평생갈수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만난다”며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외대는 2007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한인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고 재미사업가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였다. 2012년에는 ‘글로벌 CEO 해외과정’으로 과정의 명칭을 변경해 글로벌 CEO 국내 과정과의 교류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7월 23일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지난 7월 23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박동철 지부장)는 자카르타 롯데 쇼핑 에비뉴 메인로비에서 7월 23일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이번 행사는 ‘23 July Waktunya Anak Diakui’ (7월 23일이 어린이날임을 인식하자!)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미원인도네시아가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아동권리 증진지원사업에 지원을 약속한다는 협약식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의 라와바닥 사업장 후원아동들의 인도네시아 전통춤 공연 및 수까부미 사업장 후원 아동들의 인도네시아 전통 대나무 악기 앙골롱 (Angklung) 연주, 어린이와 일반 참가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6개의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바라는 아이들의 희망과 꿈이 담긴 영상도 상영되었고 마지막에는 초대가수 CJR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의 피날레에서는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Hari anak national)’ 와 ‘함께(Bersama)’ 라는 노래를



어린이가 주인공이라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노래’를 다함께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 전원 모두가 다같이 합창을 하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며, 어린이가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였다.

이에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매년 어린이날을 홍보하기 위해 길거리 캠페인, 및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ASEAN 25주년 기념 현대 미디어 아트전

한 국과 아세안 10개국 작가들의 현대사진과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는 ‘한-ASEAN 25주년 기념 현대 미디어 아트전’ 개막식이 18일,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열렸다.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가 주최하고 한-아세안 센터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동남아 10개국 아세안대사, 아세안사무국 대표,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변화하는 풍경, 방랑하는 별’이라는 주제로 동양적 정신과 서양적 외형, 전통의 계승과 미래적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보고 아세안 국가들의 서로 닮은 듯 다른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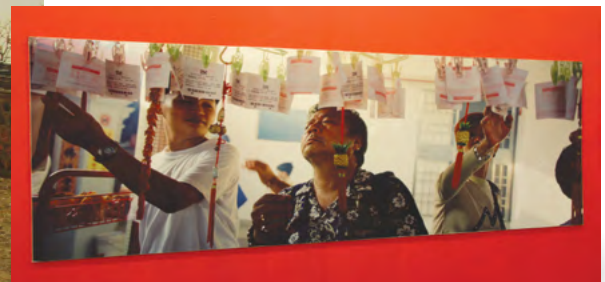
한성필, 장태원, 김문, 이성희 등 4명의 한국 작가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10개국 작가 18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김문 작가는 아세안 국민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사진에 담아내면서 그들 국가의 특징도 함께 담아내는 심플하면서도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했다. 장태원 작가는 아세안 국가들의 아름다운 야경을 담아냈다.

베트남의 구옌 테 손 작가는 베트남 밤거리의 번쩍거리는 높고 긴 간판들을 통해서 도시화되고 있는 베트남 현대 도시가 지닌 욕망의 단면을 표현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나 무르티 작가는 자신의 몸을 어벤져스와 원더우먼 등 미디어 속 영웅들을 상징하는 온갖 조형물들과 함께 합성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인 개인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대상과 동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변화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변화에 대한 작가들의 사색과 비판, 그리고 해학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2014년 고문 및 임원 명단

고문	김문환	문화예술총연합 회장	신기엽	한인회장		
	김영만	PT. KIPCO ENERGY 사장	양영연	대한체육회 회장		
	박동희	평통회장	이강현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서영을	PT. PRATAMA ABADI INDUSTRI 회장	현상범	자유총연맹 회장		
초대이사장	김상태	전 이사장 / SMS그룹대표				
이사장	송재선	PT. PUTRA HANKUK 대표 / 인도네시아수석협회 회장				
감사	이동균	돌석 KOREA. DS 대표이사				
홍보이사	구자성	일요신문 사장	최석일	인도웹 사장		
	김정윤	교민세계 사장	홍석영	한인뉴스편집장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이사	남순덕	전 JIKS 교사 / 헤리티지 고문	이재원	인도네시아 주재 명예수산물		
	박경영	PT. BUMA APPAREL 대표이사	이태복	월드옥타 상임이사		
	손문익	서희 건설 해외본부장	임재호			
	안선근	국립이슬람종합대학교 교수	정기천	마타하리치과 원장		
	이경은		한경혜	헤리티지 고문		
이사 (한국)	김영숙	제17대 국회의원	석해인	아름다운 서재 대표		
	선종복	아시아아프리카 남민교육후원회 부회장	이정순	안중학원 이사장		
			허명기	승산건설 대표		
원장	사공경	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부원장	채인숙	다큐멘터리 작가				
대외협력위원장	남기인	자유총연맹 부회장				
수석팀장	김현미	열린강좌	인테리어스타일리스트	안미경	지원교류	우리투어 실장
	박선이	문화탐방	영어강사	조연숙	지원교류	데일리편집장
	정윤희	정보홍보	IT Trainer/패션디자이너	최미리	지원교류	그림사랑 회원
팀장	박윤정	프로젝트 키워 대표	전영민			
	박희승	미술상담 치료사	최유미			
	유정은	한*인니문화연구원 인니어강사	최형욱	PT. SOEN PERMATA 대표		
인터넷 공모전 심사위원	박정자	시인/문인협회 부회장 전 한인뉴스 편집장 (시집 5권 발간)	서미숙	수필가/시인/문인협회 감사 (수필집 3권 발간)		

인니어 수업 시간표 (2014년 8월)

	월	화	수	목	금
9:30-10:50	초급 II	초급 I	초급 II	초급 I	초급 II
11:00-12:20	중급	초급 II (9월 개강)	중급	초급 II (9월 개강)	중급

*인터넷 접수/ 문의 : lovekoin@hotmail.com / (+62 21) 527-3630

*초급 II는 초급 I과 중급의 중간 수준 *비회원은 연회비 Rp 20만 납부

수업	개강일	강사	수강료(Rp)/24회
초급 I (화·목)	8월 7일	Adam	150
초급 II (월·수·금)	8월 6일	Adam	150
초급 II (화·목)	9월 예정	유정은	170
중급 (월·수·금)	8월 6일	Adam	170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 자카르타 지역조사단 스마트센터 건립 관련 협력방안 논의

ADRF 지역조사단은 KOICA의 국별 민간단체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재생컴퓨터(KCR)와 함께 빈곤지역 아동의 정보격차 문제해소 및 교육권리 증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ADRF 스마트 센터' 건립을 위해 지역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중복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 부회장은 지난 4일 지역조사 중 한·인니 문화연구원을 방문해 사공경 원장에게 지역조사의 목적을 소개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후 현재 구상 중인 프로젝트가 자카르타지역에서 실행 될 경우 빈곤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한·인니 문화연구원 송재선 이사장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사공경 원장은 빈곤 지역 아동들의 교육 권리를 실현하고 인도네시아 아동들의 바른 인성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시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면 그 첫 단추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며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력 파트너인 KCR은 기술 인력과 설비를 핵심 역량으로 불용 PC 재사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취약계층의 IT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용을 창출하여 자원순환 및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올해 1월 ADRF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센터 프로젝트에서 멀티미디어센터 구축을 위하여 함께 준비 중이다.

이번 스마트 센터 건립 지역조사단으로는 선 중복 부회장과 함께 ADRF 한국사무소 해외사업팀 김도연팀장, 박영준 전임, 고지은 전임, ADRF 인도네시아 책임자 피자(Fiza), 아리야니(Ariyani), 한국재생컴퓨터센터(KCR) 이성민이사가 참석하였고, 이외 K-eduIn 김일영 P. Director가 자리를 함께했다.



KOICA, "한-인니 사이버보안 세미나 2014" 개최

KOICA는 6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반둥공대 Jatinangor 캠퍼스에서 '한-인니 사이버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세미나에는 우리 측에서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인니 측에서 Akhmaloka 반둥공과대학 총장과 Suwarno



전기전자공학부 학장, 인니 국방대학 Subekti 부총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중앙 및 민간은행 등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에서 열띤 취재를 하였고, 언론사 합동 기자회견도 마련되어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사업과 금번 세미나의 취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자체 사이버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KOICA가 2011년부터 4개년 간 550만 불을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한 일환으로, KOICA는 동 사업을 통해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 및 운영, 고급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 석사과정 개설, 한국의 보안 기술 이전을 통한 연구 개발, 인니 사이버 보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 개최식에서 반둥공과대학 Suwarno 학장은 “사이버 보안이 시험대에 오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늘의 세미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Akhmaloka 총장은 “사이버 보안에 있어 특히 중요한 군·경·금융 분야에 있어 KOICA와의 협력이 기술뿐만 아니라 보안 의식까지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감사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KOICA 김병관 소장은 “이번 세

미나가 양국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을 단지 정부 차원이 아닌 학문과 민간 부문에서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2013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한 금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정기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 세미나로 인니 사이버 보안 산업의 태동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변 ASEAN 국가의 관심까지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서 국방부 및 금융보안연구원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방 및 금융 분야의 우리나라 선진 기술을 소개하는 순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양국 간 기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세미나의 오프닝 공연으로 KOICA가 신한은행, 개발NGO 팀엔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CSR 사업의 수혜자인 길거리 아동들의 아름다운 현악 협주 공연이 마련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학업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반둥시 길거리 아동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자립역량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단기간 음악교육을 받았음에도 놀라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KOICA의 CSR 사업과 연계하여 반둥공과대학은 사회공헌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봉사과 공익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상수도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한 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7월 15일(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반둥 지역 상수도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이하 ‘반둥 상수도 시스템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Adang Saf Akhmad 공공사업부 짜따름 강유역청장, Donny Azdan 국가개발기획부 수자원관개국장 등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인니측에서는 서부자바주정부, 국영전력공사, 기상청, 지방수자원관리청, 한국측에서는 동 사업 용역을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유신 등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총 300만 불의 예산으로 2013년 1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에 최종 종료하게 되는 이 사업은 반둥시의 극심한 식수 및 용수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댐, 도수로 설치 대상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상수도 운영체제자문을 통한 효과

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 동안의 작업결과를 집대성하여 ▲댐 건설을 통한 물량확보, ▲통합운영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관리, ▲설계이후 본 사업 연계계획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어서 참석자들은 댐 및 상수관로의 설계디자인, 댐 통합관리시스템, 환경영향평가 및 토지수용과 이주계획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KOICA는 본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반둥시의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신설 댐 타당성조사 및 본 사업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동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기금(EDCF)와의 연계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러한 후속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반둥의 상습적인 식수 부족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인문사회문화연구소,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인터뷰 인니문화를 통해서 본 우리의 정체성과 연구원의 역할



지난 3일, 대구 MBC 취재팀이 한*인니 문화연구원을 찾았다. 사공경 원장과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는 인터뷰를 비롯하여 2시간에 걸친(10시-12시) 열띤 취재가 이루어졌다. 대구mbc취재팀, 진동주, 탁대열 감독과 인문사회연구소 이정화 작가, 임나라 연구원, 그리고 문화연구원 정윤희, 김현미 수석팀장과 김길너 회원이 참여했다.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은 대구인문사회연구소와 대구 MBC 방송국이 경북의 정체성 찾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포들의 이주역사, 삶의 애환, 실질적 경제 문화교류 등 동포사회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콘텐츠 제작이 목표이다.

취재팀은 사공경 원장과 인니문화를 통해서 본 ‘우리의 정체성’ 과 ‘문화연구원의 역할’ 에 대해서 인터뷰했다. 인니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종족들이 인도네시아라는 한 국가에서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다. 사공경 원장은 “우리는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구별하고 타인을 자각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며 “이

러한 보편성을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 말했다.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의 주요내용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문화콘텐츠 영상(다큐멘터리 - 대구MBC협력 제작)으로 기록하여 방영하고 책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송채선 이사장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외동포들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연구원 임원들의 토론에서는 인니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가는 한국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 온 한인들이 현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소통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면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사공경 원장은 “음악도 다양한 장르가 서로 부딪히고 만나면서 새로운 화음을 만들 듯이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을 장려하여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통을 위한 토대가 되고자 한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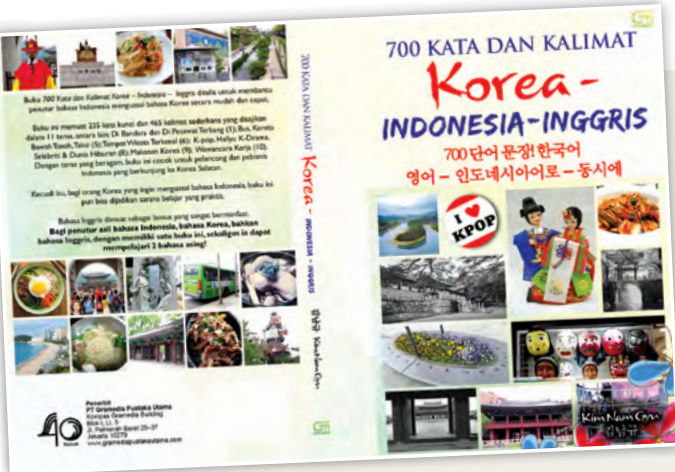


포토뉴스

7월22일 한인회에서는 육군전략사령부 (KOSTRAD) DVS 1 신임사령관의 국제용무도 인도네시아지회 (회장 배응식)팀 초청행사를 지원하는 찬조품 (라면 30박스, 초코파이 20박스) 을 전달하였다.



7월7일 한국인 김화수선교사가 운영하는 반동의 고아원 (찌앙주앙소재)에서 송태홍 (반동거주)씨을 비롯한 김미옥씨, 임경애씨의 미용 봉사하는 모습이다. 몇 해동안 꾸준히 봉사해 온 송태홍씨는 “지난달 새로 동참한 두 분들로 인해 더욱 힘이 나고, 이곳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서 보람을 만끽하고 간다” 고 전했다.



저자 김남규

신간 안내

11개 테마(한국 관광 명소, 한류 드라마, K-POP, K-Food, 쇼핑, 직장면접, 기본회화 등)를 총 465개의 필수 암기 문장을, 1. 인도네시아어 2. 한글 3. 로마자로 표기 된 한글 4.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에 편한 책을 드디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35 개의 필수 단어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90장의 컬러 사진을 게재하여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용적일 것이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관광이나 업무 차 방문 시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배우려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문 중)

"재외동포 한상 위한 '세법 매뉴얼' 속히 나와야" 제61차 재외동포포럼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재외동포 한상들에 대한 세법 매뉴얼 및 개선방안이 속히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이형모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 한상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 등 관련 당국과 언론이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 이 이사장은 재외교포 사업가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로 '거주자' 개념을 들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를 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인의 경우 또한, 법인세법 제1조에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정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기록돼 있다. '거주자' 개념은 재외동포 한상들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데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세무조사 시 '비거주자 판단 고려사항'에 대해 낱알이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해당자들의 △사회적 관계(주거, 가족, 자산, 국외체류) △경제적 관계(직업, 소득, 자산, 금융 등) △법률관계 등을 토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이중에서도 '국외 체류일수(1과세기간 183일 이상)', '비거주자로 제반 세무신고 이행 여부' 항목에 대한 재외동포 한상들의 인지가 부족하다"며 이들이 세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탈세 3대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완구왕, 선박왕, 구리왕 사례를 들며 "국내자본으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세금부과방식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가 여부 △과세대상 소득인가 여부 △과세대상소득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가 여부 등 주요 과세사례 쟁점 9가지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가한 안경환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공동대표는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 세금부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전방위 접근 방안'에 대해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한국이 무역규모 1조 달러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정법은 이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모호하고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한상 세금부과 문제해결은 '계몽, 제도용 국세청 앞 세무보고 및 납세의무 이행 실무가이드' 보급과 같은 통상적인 지원활동 외에도 실무적 개선방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트랙(Two-Tracks) 방식'으로 병행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상 세금부과 문제에 대해 국내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능을 펼칠 시민운동 개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외동포 첩외법규 심사판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국세청과 한상 간 마찰을 방지하는 원활유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모 이사장은 "이번 동남아한상대회에서도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한상들의 공감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동포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상들의 국내 투자로 나라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세무당국을 에둘러 비판했다.(재외동포 신문 .2014.7.14)

Selamat Hari Raya Idul Fitri 1435 H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부디오노 부통령은 24일 자카르타 스넨시장역을 찾아 기차안을 가득메운 귀성객들에게 안전한 귀성, 귀경을 하라고 당부했다. 르바란 기간에는 고향으로 부치는 소포의 양도 크게 늘어 자카르타 우편집중국은 산더미 같은 소포들이 쌓였다. 우체국은 르바란 기간에 소포수가 평소보다 100%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귀성길 곳곳의 휴게소에서 경찰들이 경찰 마스크트를 한 인형을 쓰고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게 귀성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아딧야(Aditya), 안따라(Antara)



2014 인도네시아 르바란 이모저모



2014년 7월 월간 경제 브리핑

존스랑라살 “정권교체 후 외자 개방…부동산 활성화 전망”

미국의 부동산투자업체인 존스랑라살(JLL)은 16일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인도네시아 차기 정권이 고급분양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인 조꼬위가 내세운 정책에 호감을 가져 정권교체 후, 선거상황을 지켜보던 기업들의 투자가 뒤를 이어 사무실 및 상업시설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JLL 인도네시아의 토드 사장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고려하면 투쟁민주당(PDI-P) 소속의 조꼬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조꼬위가 언급한 것처럼 자카르타와 발리주에서 25억루피아 이상의 고급 주택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게 되면, 매매건수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의 개인투자자로부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상업지구(CBD)내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발리는 호주와 러시아로부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JLL의 안톤 부장은 “외국인은 합계 70년의 임차권이 인정되지만 이를 완화해야 한다. 투자 유치촉진과 징세제도도 재검토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의 분양 아파트 총공급량은 2017년까지 6월말 시점보다 58% 증가한 14만6,050가구가 될 전망이다. 향후 3년간의 신규공급량은 5만 3,560가구로 예상되며 이 중 고급아파트는 4천가구 미만으로 70% 이상이 이미 매약이 됐다.

■ 사무실, 공급 증가로 수급 완화

새 정권이 정해지면 사무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불확실한 요인이 줄어들어 수급이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안톤 부장은 “자카르타 CBD에서는 내년 말에 완공예정인 사무빌딩이 많다. 2018년까지 총 공급량은 6월말 시점보다 60% 증가한 750만평방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입주율이 높지만 앞으로는 수급이 완화돼 향후 2~3년내로 임대료 신장폭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말 시점의 수도 CBD의 평균임대료는 19만 6,100루피아, 서비스비는 7만 8,170루피아, 입주율은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CBD 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의 입주율은 97%로 서부자카르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차기 정권 출범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이 더해지면, 부동산업계들의 기대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분양 아파트 통계 (2014년 6월말 시점)	
총공급량(가구)	92,490
성약률(%)	94
신규공급량(가구) ※	53,560
성약률(%)	73

※ 2017년까지 전망

자카르타의 임대부동산 통계(2014년 6월말 시점)			
	사무실		상업시설
	CBD	CBD 외	
총공급량(백만 m ²)	4.7	1.9	2.6
신규공급량(백만 m ²)※	2.8	1.2	0.4
입주율(%)	94	90	93
월임대료(루피아)	196,000	108,900	369,600
서비스비(루피아)	78,170	60,000	92,900
총액(루피아)	274,270	168,900	462,500

※ 사무실은 2018년까지, 상업시설은 2017년까지 전망 / 요금은 1평방미터당 월 요금

놓쳐선 안 될 인도네시아 MICE 산업

세계적으로 마이스(MICE) 산업이 뜨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가 인프라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복합적인 산업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르띠니 빠함 관광창조경제부 MICE산업 부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880만명 중 오직 3%만이 MICE와 관련된 방문객이었다” 고 밝혔다.

MICE 산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2년 기준 전체 방문객 중 2.1%인 16만 9,243명에 그쳤다.

마르띠니는 “2015~201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 따라 2019년까지 MICE 방문객 수를 기존의 3배로 늘릴 것” 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제규모가 지속성장함에 따라, MICE 산업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마리엘카 빵에스뚜 관광창조경제장관은 최근 “정부가 MICE산업 집중 육성도시로 전국 16개 도시를 선정했다” 고 밝혔다. 해당 도시는 “서부자바 반둥, 리아우제도주 바탐, 발리주 덴빠사르, 자카르타, 북부수마트라 메단, 남부술라웨시 마까살, 북부술라웨시 마나도, 서부누사뎡가라 마따람, 동부자바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등이다.

자카르타에는 자카르타컨벤션센터와 JJ마요란 JIEXPO가 마련되어 있다. 내년에는 남부땅으랑 소재 BSD시티에 인도네시아컨벤션박람회센터(ICE 센터)가 완공된다. ICE 센터는 5만 스퀘어미터 크기의 홀, 5만 스퀘어미터의 야회 전시장, 4천 스퀘어미터의 컨벤션 센터로 구성된다.

한편 이웃국인 싱가포르에는 12만 스퀘어미터의 마리나베이샌즈, 태국 방콕에는 14만 스퀘어미터의 IMPACT 컨벤션홀, 중국 상하이에는 20만 스퀘어미터의 상하이신국제엑스포센터(SNIEC)가 마련되어 국내 MICE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i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조코위 PDIP연합, 의원영입 시급하다

인도네시아의 현 정치 세력은 조코 위도도 당선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조코위 당선자가 소속된 투쟁민주당(PDIP)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됐지만 득표율이 19%에 그쳤다. PDIP는 국민각성당 등 3개 정당과 연합을 구축했으며 의회 560석 중 207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빠라보위 수비안또 후보가 이끄는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연합의 의석은 353석에 이른다.

PDIP 연합이 의원들을 추가로 영입하지 못하면 조코위 당선자의 개혁정책은 그린드라당 연합에 가로막힐 위험이 있다.

조코위 당선자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선거 집계에서 53.2%의 득표율로 46.9%를 얻은 수비안또 후보에 6.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조코위 당선자는 5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10월 취임한다.

에너지 보조금 삭감...조코위 정권에서 실현해야

“10월 출범하는 새 정권은,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주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은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보조금 삭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강조하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KADIN의 수르요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통화위기가 닥쳤던 1998년부터 재정난에 빠져, 인프라 개발에서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인프라개발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인도네시아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정책이라 지적했다.

그는 새 정권은 용기를 갖고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자카르타 주지사)와 유습 깔라 부통령 당선인은 보조금 삭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코 당선인은 “4~5년간 단계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줄일 것”이라 밝혔으며 유습 당선인은 “새 정권 출범 이후 100일 이내 석유연료 보조금 삭감을 실현시킬 것”이라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대상 석유연료 할당량은 4,600만 킬로리터다. 올해 상반기의 보조금석유 소비량은 2,291만 킬로리터로 이미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집무실에서의 김종립회장



제25대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이하 KOGA) 김종립회장 (PT. Good Guys Indonesia 대표) 과의 인터뷰

지난 7월16일 한인뉴스 조규철편집인은 PT. Good Guys Indonesia (KBN 소재)를 방문하여 김종립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1 6월25일 봉제협회 총회에서 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5년간 KOGA Jakarta 지역 부회장을 지내면서 KOGA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과 공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 KOGA의 활동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OGA의 근본 취지는 인도네시아 소재 봉제인들의 친목입니다만 최근 수년간 여러 가지 공동의 난관(하청 규제 법, 임금 급 상승, 사건 사고 등)에 부딪쳐 봉제인들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면서 봉제인들의 공동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본지 조규철 편집인과 PT. GG Indonesia 를 둘러보는 모습 >>

3 이번에 새로 단장한 KOGA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KOGA 조직을 실무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지역 부회장 제를 부회장과 상임 위원사 제로 변경
- 부회장 : 대내 협력 / 대외 협력 / 자금 관리 / 타 협의회 및 단체와 소통 / 특수 지역관리
- 상임 위원사 : 기존의 중요 벤더사들 간의 교류를 강화시켜 형성된 상임 위원사(20여 회사) - 대표



상임위원사를 중심으로 규모가 큰 회사들로부터 강한 지원을 받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사무국

* 사무 차장 확대(1명 → 4명으로 하고 각 직무 분담)

* 상근직 신설 : 정보 데이터 관리, Website관리, 소통 center 등

최경란 간사 (021-8370-9559)

Website : www.koga.co.id

4. 봉제인의 입장에서 본 인도네시아의 전망은 어떠한지요.(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등)

인도네시아의 봉제 산업의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노동의 질은 타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좋아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생산성을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면 봉제산업의 생명력은 인도네시아에서 길다고 생각합니다.

5. 김종김회장의 개인적인 인도네시아 정착의 여사가 궁금합니다.

저의 인도네시아 정착 - 1995년에 주)대우 무역 주재원으로 나와 2000년말 PT. Good Guys Indonesia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6.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든 재인나 봉제인들이 건강하고 떳떳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봉제인들 선.후배간의 화합과 원로 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따듯하고 강한 KOGA가 되는 것입니다.

7. KOGA 회원사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봉제업 뿐만 아니라 봉제생산에 다양한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정회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KOGA는 모든 회원사들이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모두가 내 일 처럼 깊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8. 향후 KOGA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 모든 회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애로 사항, 협조 사항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KOGA가 되기 위해 사무국에서 중요 정보 수집 및 관리, 대외적으로는 유관 당국, 유관 협의체/단체들과 원활한 교류를 할 것입니다.

2) 강한 KOGA를 만들기 위해 회원사들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SNS 혹은 기존 홈페이지를 적극 관리할 예정입니다.

9. PT. Good Guys Indonesia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PT. Good Guys Indonesia(GG Indonesia)는 한국의 GG무역의 자회사로 매출의 3억불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미국 Light woven 바이어들에 대한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인뉴스 7월호 봉제협회 총회 기사 중 PT. Good Guys Indonesia를 PT. Good Guys Indonesia 로 정정합니다)





분위기와 맥락, 그리고 의사결정

판단과 의사결정은 무엇에 영향을 받나?

인간은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그 대상에만 집중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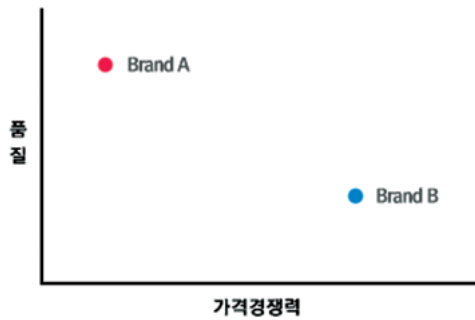
왼편의 가운데 작은 사각형과 오른쪽의 가운데 작은 사각형은 같은 색과 같은 밝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왼편보다는 오른쪽의 것이 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 눈치가 빠른 독자들께서는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위(즉 맥락)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양

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마트에서 A와 B 두 개의 물건 중 고민에 빠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다.



A와 B 두 물건의 비교

A는 품질이 B보다 좋고 B는 A보다 가격경쟁력이 좋기(즉 저렴하기) 때문이다. 도무지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며 따라서 망설이게 된다. 그런데 진열대에서 A와 B 곁에 있는 제 3의 브랜드인 C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 C를 구매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C로 인해 A와 B 간의 우열이 더 쉽게 가려진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다.



C물건이 추가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먼저 번의 상황에서보다 더 쉽게 B를 선택한다. 아마도 이런 과정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A와 C 사이에서는 품질과 가격 이 두 항목에서 각각 1승1패다. 그런데 C는 B와의 관계에서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진다. 즉, C로 인해 B는 웬지 보다 더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합전적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B를 선택하고 만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우스운 일이다. 일단 C를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A와 B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C라는 존재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좀 이상한 일이다. A와 B 간의 비교는 C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양자대결로 압축시키면 우열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장 열등한 제 3의 대안이 추가되면서 1등이 더 쉽게 가려지는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꽤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연구, 조사 혹은 관찰에 의하면 몇몇 기업에서는 이를 마케팅에 의도적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순서만 바뀌어도 맥락이 바뀐다

인간은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그 대상에만 집중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인간은 판단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분위기에도 생각의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맥락과 분위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맥락과 분위기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만 바뀌도 맥락은 크게 바뀐다.



두 종류의 백과사전이 있다. 둘 모두 좋고이지만 보관상태와 내용의 양에 있어서 상이하다.

- 백과사전 A : 거의 새 것이며 10,000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백과사전 B : 표지가 찢어져 있으며, 20,000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언가를 따로 따로 보기 시작하면 상대비교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두 대상을 동시에 놓고 보면 이제 상대비교가 더 용이해 지기 시작한다.

재미있는 것은 두 사전을 따로 따로 즉 하나씩 보여주고 난 뒤 고르라고 하면 A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순서와 상관없이 A가 더 선호된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오, 이 사전(A)는 아까 것보다(B) 더 보관상태가 좋은데? 이걸로 사야겠네.” 혹은 “중고책 서점에서 이렇게 깨끗한 책 사기가 쉽지 않은데 운이 좋군?” 등이다.

그런데 두 사전을 동시에 보여주고 고르라고 하면 B가 더 많이 선호된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식이다. “어차피 중고니까 낡은 것이야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겠어?” 재미있는 불일치이다. 어떤 경우에는 보관상태를 더 우선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록된 내용의 양을 더 우선시했으니 말이다. 첫 번째는 주관적이고 따라서 질적인 차이이다. 하지만 두 번째는 양적인 차이이다. 무언가를 따로 따로 보기 시작하면 상대비교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질적



으로 두드러진 무언가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두 대상을 동시에 놓고 보면 이제 상대비교가 더 용이해 지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보다는 양적인 차이에 더 민감해지게 된다. 순서의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맥락이 바뀌고 이렇게 바뀐 맥락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어떤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냐 하는 근본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말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봄’ 이라는 뜻이다. 처지란 무엇인가? 관점이다. 따라서 맥락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이러한 맥락의 변화는 생각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필자가 늘 말씀 드리지만, 무언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인간이라고 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맥락의 변화는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의 변화를 위해 맥락의 변화를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문체나 이슈 자체에만 집중하는 고집스러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공존의 가치를 느끼며 -ROEMAH DJAWA를 다녀와서

김 현미(연구원 열린강좌 수석팀장)

-문명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다- (레비스트로스)

옥 중하고도 정교한 조각의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인도네시아 자와의 전통가옥인 루마자와(Roemah Djawa)는 조글로(joglo) 양식으로 지어진 높은 천장을 가진 보물창고였다. 천정에서 바닥까지 늘어뜨려진 선명한 빛깔들의 휘장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강강술래를 하며 축제를 즐겼던 원시의 역동성을 느끼게 했고, 그 아래 빛나는 귀품들은 아롱다롱한 회전목마의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빛깔들의 각종 취옥과 자석영, 황옥과 금빛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수집품들은 아스맛 부족의 거친 고재 나무 조각과 오랜 세월에도 나무 특유의 자연스러운 광택을 잃지 않은 섬세한 조각들 사이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듯 숨어있었다. 오지연구가이자 여행가인 LEKSMONO SANTOSO 부부의 컬렉션 취향을 따라 이들 수집품들은 보라, 빨강, 노랑, 옥색의

다양한 빛깔의 벽에 느리거나 혹은 빠르게 속도를 달리하며 세워져 그 강약이 조화로이 배치되어 있었고, 시대를 달리하는 비비드한 칼라의 섬세한 패브릭 소품과 현대적 개성을 담은 소품과 어우러져 세련되게 가공되어진 페리도트처럼 빛났다. 42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루마자와는 비밀통로를 지나가듯 한 면의 휘황찬란함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내 다른 쪽 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매력의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좁은 계단을 지나 문을 열면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 되는 거대한 보석상자 속에 풍덩 빠진 기분이었다. 그들 부부가 걸어 다녔을 그 오지의 험난한 길들과 이 귀한 것들에 응당한 대가를 치렀을 그 수고로움이 그대로 투영되어 보였다. 진귀한 수집품들은 현재에도 입고 사용되는 여러 생활용품과 자연스레 섞이고 배치되어 삶이 곧 예술과도 같은 응집체를 만들어 내었다.

루마자와의 각 방 천장은 수집품들 특유의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바틱방에 이르러 나는 그 절정의 아름다움에 놀라왔다. 벽을 가득히 채운 바틱작품은 가지런한 진열대를 빼곡히 채우고도 넘쳐나 천장까지 덮고 있었는데, 그 조화로움이 예술이었다. 바틱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족히 1~2년은 소요 된다고 했다. 나는 점묘화를 감상하듯 바틱의 점 하나 하나가 어떻게 선을 이루고 그 선이 어떻게 문양을 만들고 휘돌아 나가며 하나의 면을 채우면서 작품을 완성 시키는지 세밀히 살펴보았다. 수공예 특유의 촉촉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문양을 찍고 촛농을 떨어뜨려 선별적 염색작업을 무한반복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각각의 점들은 어느 예술가의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었던 생활의 흔적이며, 노곤한 하루 하루를 태워나간 귀중한 결과물이었으리라.

나는 가끔 돈과의 교환가치에만 몰두하여 생산된 기계적인 육체노동으로 만들어진 수작업 상품을 보면서, 이것을 구입하면 오히려 저들을 더한 노동의 세계에 가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엔조마리의 '선의의 디자인' 철학을 깊이 동감한다. 육체적 노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디자인. 그의 디자인 철학과 작업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베풀고 공유하는 '어진 윤리'가 깔려 있다.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어서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작품과 기계적 노동을 배제한 디자인 이 모두는 상반되는 가치 같지만, 나는 이들 둘 다 모두 인간의 본질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 무엇이든 본인의 진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본연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해준다는 익숙한 명제와 닿아있다.

나는 종종 귀족들이 사용하던 섬세한 조각의 다양한 물품에 감동도 하지만, 서민들이 사용했던 투박한 생활예술품들도 사랑한다. 서투르고 촌스럽지만 생활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캐어 올린 값진 것들에게서 나는 귀한 영감을 얻는다. 그리하여 나는 박물관의 진귀한 수집품과 동일한 가치로 이렇듯 일상의 생활과 뒤섞여 있는 개인박물관의 촌스러움에 깊이 빠진다. 생활 예술의 처음은 시시하고 서툰 것이지 않던가? 촌스러움은 고정화된 가치로부터 의문을 가지는 일이다. 자유롭고 관대한 상상력으로 생활에 가치와 기품을 부여하는 일. 그 자체가 삶이고 예술인 것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다.

우리는 구하기 힘든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귀한 음식을 먹을 때, 대단히 신기해하고 그 맛이 지닌 비밀을 캐듯이 음미 하면서 정크 푸드는 싸구려음식으로 평가절하 할 때가 있다. (세계의 모든 길거리 음식은 대단한 대중성과 상업성을 지녔다) 재료가 희귀하다고 더 맛있고, 흔하다고 맛있는 것이 아니다. 난 물건을 구입할 때 가끔 희귀한 것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가 있다. 희귀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듯이 '흔한 것'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절하 하기 싫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모던하고 쉬크한 콘셉트 작업을 하느



라 회색과 검정의 모노톤을 집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느껴보며 명도를 정해야 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로도가 느껴졌었다. 객관화된 세련 됨은 어찌면, 그렇고 그런 뻔한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두렵다.

나는 오늘 루마자와 문화탐방을 하며 피로가 완전히 씻긴 느낌이다. 그 축제와 같은 알록달록한 색채를 보며, 무장해제된 자유를 느껴본다. 사용하는 색을 최소화 시켜 완성하는 작업을 하다가 거리를 나가면, 널브러진 나뭇가지와 담장을 넘어 나온 능소화 꽃들, 제멋대로 부는 바람들에게서 나는 산토리니 바닷가 마을의 부겐빌레아만큼 자유함의 위안을 받는다. 절제된 색상의 샘플을 찾다가 우연히 바람에 나부끼는 꽃무늬 천 조각은 나에게 활력소 같은 설렘을 준다.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을 살펴보면 상반되는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한 바탕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요즘 다시금 절절히 느낀다.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은 단순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함은 다양성을 제대로 이해 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이리안자야 아스맛 원시조각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조각이다.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방패는 그 모습 그대로 집의 울타리와 장식의 역할도 해낸다. 죽음도 삶처럼 일상으로 맞닥뜨려진,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항상 목숨을 내어 놓아야 했던 그 하루하루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바쁘고 고단한 때가 있다. 나는 이때 이 방패를 보고 있으면 태고의 안식과 문명의 가치를 깨닫는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식의 도식- 에서 본질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내 작업도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루마자와의 또 다른 기억은 내게는 바틱 천장이다. 천장으로 모아진 빛이 바틱의 형형색색의 모양을 그대로 꽃가루로 만들어 아래로 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기계적인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그 한 점 한 점 혼신을 다했을 그 진심이 꽃잎이 되어 내 마음에 각화 되었다. 이 날의 그 아름다운 꽃가루는 나로 하여금 앞으로 힘든 어느 하루에 또 다른 하나의 문턱을 지나가게 할 힘을 줄 것이다.



ROEMAH DJAWA (021) 7591-3558
Jl. Lebak Bulus III No.85 Z, Lebak Bulus
Cilandak, Jakarta Selatan





귀대한 감동의 뮤지컬 '모차르트'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한 국에 머물게 될 때 좋은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오면서 학창 시절 즐겨 찾던 연극이나 뮤지컬을 마음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요즘은 오히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공연티켓이 있다고 불러주는 친구나 지인들이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취미를 알아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임을 깨닫는다. 나의 보수적인 성향 탓에 유행가나 가요보다는 고전음악이나 클래식음악을 더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은 젊은 시절, 나의 심장을 두드리며 문학적인 감성을 열어주었다. 잔잔하다가도 열정적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나 교향곡을 듣고 있노라면 퇴색되

지 않은 순간들이 푹푹하게 살아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모차르트를 이번에 한국뮤지컬로 만나게 되었다. 서울에 오자마자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20년 지기 친구는 귀한 뮤지컬 티켓이 있다고 알려왔다. 바로 여름 시즌에 맞춰 네 번째로 오픈하는 뮤지컬 <모차르트>다. 화창한 오후에 뮤지컬 <모차르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발걸음조차 경쾌했다. 최근에는 한국에 오면 뜻이 맞는 작가들과 대학로에서 연극과 콘서트를 주로 보았는데 두 달 여 만에 다시 와보는 뮤지컬 나들이는 명성 높은 감동의 뮤지컬 <모차르트>를 만날 수 있어서 기쁨이 두 배로 컸던 것 같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태생인 모차르트

(Mozart, Wolfgang Amdeus)는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작곡가이고, 18세기 유럽을 주름 잡았던 천재음악가이기에 우리는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뮤지컬<모차르트>는 2010년 초연당시 한국의 뮤지컬계에 유럽뮤지컬을 심는 새로운 장르로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그만큼 모차르트의 생애는 수많은 예술계의 창작 모티브가 되고 있다. 이번 뮤지컬 모차르트는 지난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그 무언가가 있는 듯 했다.

바로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의 인간적인 분석이 아닌가 싶다. 의지의 주체인 볼프강(Wolfgang)과 재능의 주체인 자아를 상징하는 아마데(Amade)로 분리해서 짧지만 굴곡이 많았던 그의 역동적인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뮤지컬 배우들의 열연은 가슴을 쿵쿵 울리는 진한 감동으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특히 그날, 모차르트의 주연 배우로 열연하는 임태경의 엄청난 파워가장력은 모차르트가 환생한 듯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다. 오로지 뮤지컬가수인 임태경의 팬이라는 나의 친구 은란씨 덕분에 새롭게 변신된 모차르트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새삼 친구에게 감사하고픈 마음이다.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인간 모차르트! 그만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천재 음악가로서 멈출 수 없었던 창작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뮤지컬 모차르트의 연출력도 대단했던 것 같다. 그의 창작욕구와 고뇌를 상징하는 세종 문화회관의 독특한 무대디자인은 관객들에게 그 시대의 모차르트를 만난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봉건적인 사회적 환경에 억압 받으며 자유롭지 못한 창작 활동을 해야만 했던 모차르트! 그의 복잡한 내적갈등과 음악적 광기를 주연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가창력으로 생생히 느끼고 감상할 수 있었다.

뮤지컬<모차르트>의 줄거리를 정리해보자면 음악의 신동인 볼프강 모차르트와 그의 누나 난넬은 궁중음악가 출신인 아버지의 주도하에 유럽전역을 투어하며 상류층 귀족들 앞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모차르트는 자신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상업화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얽매는 계급사회를 못견뎌한다.

자신의 고용주인 콜로레도 대주교와도 자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볼프강 모차르트는 자유로운 음악활동과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어린 시절 아마데의 모습으로 늘 그를 따라다니는 천재성은 그에게 끊임없는 작곡을 하게 만든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기를 바랐지만 아버지 레오폴드는 언제나 볼프강에게 천재성만을 강조하며 엄격하게 주어진 창작활동만을 강요했다. 홀로서기를 갈망했던 볼프강은 드디어 기회를 얻어 홀로 파리로 오게 되지만 방탕 생활을 하게 되고 연주회도 실패로 돌아간다. 아버지의 걱정대로 빈곤에 찌든 베버 가족을 만나 있는 돈을 다 날리게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연주회에 찾



아온 어머니마저 죽음을 맞이한다. 충격을 받은 볼프강은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오지만 자신의 명성을 넓히려던 콜로레도 주교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고 베버부인의 딸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진다.

그렇게 무엇을 해도 전혀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볼프강 모차르트는 천재성 아마데로 인해 점점 더 악마처럼 변하게 되고 자아인 천재성과의 싸움은 절정에 치닫게 된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부고까지 듣게 된다. 충격과 비탄에 빠져있는데 정체불명의 남자가 찾아와 그에게 “레퀴엠” 작곡을 의뢰하고 연이어 찾아온 친구는 오페라 “마술피리” 작곡을 의뢰한다. 계속되는 작곡에 그의 심신은 피폐해지고 그의 천재성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간다. 그런 와중에 그가 작곡한 오페라는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콜로레도 대주교와의 대립에도 승리를 하게 되지만 결국 그의 삶은 천재성인 아마데의 질책과 자책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 인상 깊었던 에필로그를 덧붙이자면 죽어있는 볼프강 집에 숨어 들어온 베버부인은 볼프강의 시신은 아랑곳도 없이 남아있는 돈만을 찾아 도망을 친다. 죽음을 맞이한 순간까지도 천재였던 볼프강 모차르트는 그렇게 돈의 가치로만 치부되는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볼프강 모차르트를 주로 돈 또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이용하려고만 했다. 아버지 레오폴드마저도 그를 순수한 자식으로 보

지 않고 돈벌이로 구속하여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했고, 대주교 콜로레도, 사랑했던 여인 콘스탄체도 그녀의 가족인 베버 가족도 모두가 그랬다. 그랬기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자유로움을 갈망했던 그의 천재성은 더욱 악마 성을 띄면서 스스로를 파괴해갔는지도 모르겠다. 첫 번째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내 운명 피하고 싶어> 라는 곡에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도록 모차르트의 아픈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마치 우리가 아는 기억속의 옛 인물이 아닌 지금 현재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처럼 절절한 아픔과 고뇌가 전해져왔다.

그렇지만 그런 천재성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현 시대를 살면서 모차르트의 수많은 걱정적이고도 아름다운 곡들을 만나고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진정한 자유와 또 자유로운 예술을 갈망했던 볼프강 모차르트는 결국 죽음을 통해 그 소원을 이루었다. 죽음과 함께 찾아온 그의 영혼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화해와 사랑, 그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던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으로부터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뮤지컬 <모차르트>는 깨우쳐주고 있는 것 같다. 진정으로 구속과 경쟁이 없는 자유로운 삶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과연 저 멀리 죽음너머에만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 풀리지 않는 해답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보았다. 멀리 새 한 마리가 구름을 향해 날고 있었다. 자유를 향해 떠나는 것처럼...

천재이기 전에 한 평범한 인간이길 원했던... 그래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음악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모차르트의 안타까운 삶이 오랫동안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



AMBON Indonesia

Freedom

푸른 하늘로 날아 오르는 꿈을 꾸어본다

현실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상을 하며...



살락(Snake fruit) 뱀의 비늘을 닮은 과일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일반명: Salak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Sala, Rakum (태국)

과명: 야자나무과 (Family: Arecaceae)

학명: *Salacca zalacca* (Gaertn.) Voss.

기원지: 인도네시아

분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용: 생과일, 샐러드, 젤리, 잼, 발효주

모양새: 뱀 껍질 같은 느낌이 드는 색과 형상 육질은 사과와 밤을 섞어 놓은듯하다.

뱀의 비늘을 닮아 혐오스런 과일?

살락의 눈길을 끄는 가장 큰 특징은 겉을 싸고 있는 흑갈색의 비늘입니다. 뱀의 비늘처럼 기분 나쁘게 생겼으며 반짝이기까지 합니다. 어린 과일은 기저부에 뾰족한 가시처럼 생긴 흉칙한 털이 있어 손으로 만지기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양에선 ‘Snake fruit’ 혹은 ‘Dragon’ s egg’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맛의 반전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살락에 도전해 보시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과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껍질은 의외로 쉽게 벗겨집니다. 과육은 3~4 조각으로 되어있고 가장 큰 조각 안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맛과 향은 은은하지만 달콤하고 향긋합니다. 마치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섞어놓은 맛입니다. 달고 신맛은 약하지만 고소한 맛과 씹을 때 바삭한 느낌이 듭니다.

생활의 이용

성숙한 열매는 생과일, 통조림, 젤리, 잼으로 이용하고 덜 익은 과일은 매운 샐러드 ‘루작(Rujak)’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일부 품종의 열매를 발효하여 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밖에 살락 야자 잎은 울타리나 담장, 지붕재료, 돛자리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고르는 법

송이로 함께 달려 있는 것이 더 싱싱하며 겉 색상이 환한 갈색이고 눌렀을때 단단한 것이 좋다.

품종 및 이용

살락은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이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30여종의 품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Salak Pondoh’ (족자카르타, 향이 뛰어난), ‘Salak Bali’ (발리, 크기가 크고 씹는 느낌이 좋다) 그리고 ‘Salak gula pasir’ (발리, 일반 살락 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가장 높고 비싸다)가 유명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원주민들은 열매를 발효하여 술을 빚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의 일부 부족들은 잎과 줄기를 내열(Panas dalam)이나 혈변의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결과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스나 각종 식품첨가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무3 는 다음호에 이어 게재합니다)



동남 최대의 모스크 -The Mesjīd Istīqāl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이슬람교의 공식적인 기도는 하루에 다섯 번이다. 경전인 코란은 읽어본 적 없지만 하루 다섯 번의 기도는 이슬람의 율법인 모양이다. 자카르타 시내 곳곳에는 마을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다. 사원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는 종교와 국적이 다른 이들에게도 금세 친숙해진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답게 인도네시아의 국민은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인도네시아 인들을 만나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종교가 무엇이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 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종교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2002년이나 2005년 10월에 있었던 발리의 폭탄 테러는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적인 배타성을 말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비교하지 않고 우열을 논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율법에 충실할 뿐이다.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으로 13세기 이후 이슬람화되기 시작했다. 중동의 이슬람이 열악한 자연환경과 영토 확장을 피하는 서구 세력과 정치적 투쟁 속에서 발전하였다면,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는 천혜의 환경과 힌두교, 불교, 토착 신앙 바탕 위에 조화롭게 뿌리내려 융통성과 포용성이 있다. 만약 이슬람의 발상지가 3대륙이 교차하는 곳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였다면 불교처럼 조용한 역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원인 Mesjid Istiqlal (므스ジット 이스띠끄랄)은 모나스의 북동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국립 박물관 가까이에 있고 가톨릭 대성당과 마주 본다. Istiqlal은 독립을 의미하며, 100년 된 대성당과 마주하여 이슬람 사원을 건설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1955년 건축 위원회가 형성되었을 때 수카르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공모하여 사원을 건축했다. 그 결과 F. Silaban이라는 수마트라에서 온 건축가의 디자인이 선택되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프로테스탄트 신자였다. 그러나 건축 위원회는 그의 종교를 문제 삼지 않았다. 건축은 1961년 8월에 시작되었고, 1967년 9월부터 사용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78년 2월22일에 개관했으므로 17년 만에 완성된 셈이다. 사원은 9.5헥타의 부지에 세워졌고, 정원과 분수로 둘러싸여 있어 공원같이 꾸며져 있다. 8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사원 건물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서 있다. 큰 테라스가 사원 바깥쪽에 있는데, 보도로 되어 있어 참배자들이 넘쳐날 때 사용되고, 모나스를 마주보고 있다. 사원은 중요한 종교 축제를 위하여 오는 수천 명의 참배자들을 모두 수용하고 남녀를 구분해 참배하기 위하여 5개의 영역으로 나뉘진다. 테라스까지 모두 십만 명이 한꺼번에 참배할 수 있는데 기본 건축은 벽과 통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바닥은 동부 자바 주 툽롱 아궁(Tulung Agung) 지역에서 가져 온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밖에 있는 뽕족탑과 벽은 구멍 뚫린 격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첨탑 기둥은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철근으로 만들었다.

벽에 사용된 격자 구조는 바람은 통과하고 햇볕은 차단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도 모두 이 구조를 사용한다고 한다. 동남최대의 Istiqlal 이슬람 사원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자랑이다. 그 외에 이 사원은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의 기념하기 위해 아랍어로 ‘자유’란 뜻의 Istiqlal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 사원은 현대 인도네시아 건축의 본보기로 디자인 되었다고 한다. 이슬람 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종교적 필요를 위해 활용되고 있고, 몇 가지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심 빌딩은 5층으로 약 1헥타르인 주 바닥과 총 4층을 합하면 4헥타르가 되는 면적에 약 2만 5천명의 사람을 실내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5층은 하루 5차례의 기도와 이슬람의 5대 의무를 나타낸다. 또한 국가철학 빠자실라의 5개의 원칙을 상징하기도 한다. 7개의 사원 출입구는 영광스러운 알라 (Allah)를 뜻한다. 또한 숫자 7은 하늘과 1주 내 7일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면체인 천장은 지름이 45미터로 45년 독립을 뜻하며, 세라믹 타일로 덮여 있다. 또 천장은 12개의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데 이는 마호메트의 생일과 1년 12달을 나타낸다. 서쪽 벽에는 달필로 세 개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 있는 메시지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중앙에는 “알라의 이름은 동정과 자비로” 왼쪽에는 “알라를 찾기 위해 기도하자”고 써어 있다. 즉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성전에는 조각, 경배 대상물 및 그림 등이 없었다.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금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대신에 사원의 벽에는 아





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상 1층 바닥의 한 부분에서 청소와 예배(기도) 전후 손발 얼굴을 씻는 장소가 있다. 반드시 (세 차례씩), 손-입술-코-얼굴-팔-이마-귀-발 순으로 씻으며,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순이다. 6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사원 건축을 보면 중동과 유럽 문화도 발견할 수 있다. 즉 둥근 지붕과 서예가 적혀있고(중동영향), 튼튼한 기둥과 벽(유럽 문화)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문화가 하나가 됨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를 알 수 있다. 천정의 볼록한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하늘을 상징하는 큰 구(球)모양(돔)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름이 3미터이고 무게가 2.5톤의 무게가 나가는 이곳에 위대한 알라를 상징하는 달과 별을 보면 비로소 누구나 이곳이 '이슬람 사원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 2개의 둥근 지붕은 천지와 생사, 내·외부, 이슬람교 교훈에 관한 신앙과 인간관계의 이중성을 표현한다. 찾아오는 기도자를 위해서 매일 7,000개의 매트가 깔렸다가 접힌다. 이슬람 지도자 이맘(Imam)은 금요일만 설교단에서 연설한다. 종교적인 기도자를 위해 사용되었던 예비 건물은 주 건물 뒤에 위치하고, 5층이며 작은 돔 지붕으로 되어 있다. 테라스는 르바란(Idul Fitri Idul Adha), 읽기 대회 같은 때, 혹은 종교적인 회의로 예배자가 넘쳐날 때 사용한다. 이 테라스는 남녀 구분을 위해 2개로 나뉘어져 있다. 테라스에도 메



카 방향으로 줄이 그어져 있다. 그 줄에 서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 테라스에 칼리만탄에서 가져 온 300년 된 칼리만탄 홍색의 Meranti나무와 소가죽으로 만든 큰 북이 있는데 금요일 12시 예배 시작을 알리는데 사용된다. 이 북은 1978년 2월 22일 Soeharto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큰 북은 앞면 반경 2m, 뒷면 반경 1.71m, 길이 3m, 무게 2.30톤이며, 중부 자와의 자띠(jati)로 만든 받침다리는 높이 2.80m, 길이 3.45m, 폭 3.40m이다. 동물을 희생시키는 종교 제단은 테라스를 둘러싸고 있는 보도의 바깥 낮은 건물에서 이루어지며 피가 바로 Ciliwung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뿔쪽 탑인 첨탑(The minaret)은 기도 시작을 알리는 스피커로 사용되는데 뿔쪽 탑은 높이 6666센티미터인데 이는 코란의 6666구절을 의미하며 지름이 5미터이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건축되었다. 열려져 있는 격자무늬로 디자인되어



가능한 한 가늘게 보이도록 세워져 있다. 돐 위에 있는 금속 스파이크는 30미터 높이로 코란의 30장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순종 또는 평화를 뜻하며, 무슬림은 이슬람 신자를 의미한다. 3대 종교 중 가장 늦은 7세기에 출발했지만 불과 100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는 물론 중국까지 전파됐다. 그 이유는 이민족에 대한 관용정책 때문이다. 이슬람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생활 그 자체다. 또 현세의 삶과 내세를 동일시한다. 대체로 기도 시간 외에는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으며, 정식 입장료는 없으나 기부금을 내는 게 예의다.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려면 여자들은 얼굴과 손을 빼고는 온몸을 가려야 한다. 금요일과 이슬람 성일에는 매

우 봄비므로 피하는 게 좋다. 수녀님께서 지금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하셔서, 금요일 대예배 시간에 이스띠끄랄 사원을 방문했다. 수녀님 복장을 걱정했는데 머리 손발이 모두 가려져 있으니 이교도 복장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필자의 복장이 문제였다. 그곳에서 주는 이흐롬을 입고 머리는 수건으로 가리고 가이드와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님(Ustadz(우스닷))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며 3층에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1층에는 남자가, 2층에는 여자가 기도를 드렸다. 자기의 양팔을 끼고 옆 사람과는 팔꿈치를 맞댄다. 르바란때는 여자는 남자의 오른쪽 구역에서 서서 기도 드린다. 20분간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맘의 설교를 듣고 양탄자가 깔린 바닥 위에서, 맨발의 남자들이 여러 줄로 늘어서서 30분 정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 45도 각도로 혹은 90도 각도로 절을 하기도 하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한다.’는 ‘므스짓’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했다. 때로 두 손을 뒤로하기도 하고 손을 앞으로 모으기도 했다. 기도하고 끝날 때는 두 손을 귀 뒤로 가져가기도 했다. 너무 경건한 모습에 사진을 찍기가 민망했다. 그 복잡한 동작을 한사람도 틀리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군사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일사불란했다. 신을 향해 경건하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힘이 있어 보였고 이슬람의 뜻처럼 ‘신에게 자신



을 맡긴다.’ 는 그 자체였다. 예배가 끝난 뒤 선생님은 무슬림들과 사진 촬영도 허락했는데 그들의 시선은 따뜻했다. 특히 수녀님과는 서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코란선생님은 흰색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하지를 다녀 온 것 같았다. 선생님은 수녀님에 관해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가톨릭 수녀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고 물었다. 어디에 성당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몇 달 뒤, 종교 축일에 사원에 다시 갈 기회가 생겼다. 선생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대뜸 수녀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노라며, 건강은 어떠한가,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가, 성당 주소를 가르쳐 줄 수 있나, 전화번호라도.....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졌다. 이교도이며 수녀님은 독신임을 알지 않는가,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느냐는 물음에 그녀의 아름답고 착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홀로 가는 그 모습 또한 눈부신 아름다움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그리움을 토해내었다. 이교도와와 짝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고 했던가. 밖으로 나오니 병자, 소경, 장애인들이 사원 앞에 많이 모여서 구걸행위를 하고 있었다. 언뜻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병과 약함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리고 장터도 열려 있었고 평소와 다르게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붐볐다. 아무튼 이 거대한 사원은 인도네시아 인들이 종교적인 자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하루 다섯 번의 기도 시간에 신앙 고백을 되뇌이거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라에게 절실히 기도한다. 이처럼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삶에 있어 절대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도네시아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겠는가. 종교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낮은 자살률을 나타낸다. 이곳에 와 보면 어떤 종교이든 종교는 절실성과 경건성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종교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종속되어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종교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에서 벗어날 때 종교적인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Jl. Veteran and Jl. Perwira, Jl. Kathedral
(021)3847189, 3450772
저녁 시간에도 탐방 가능



진작 그릴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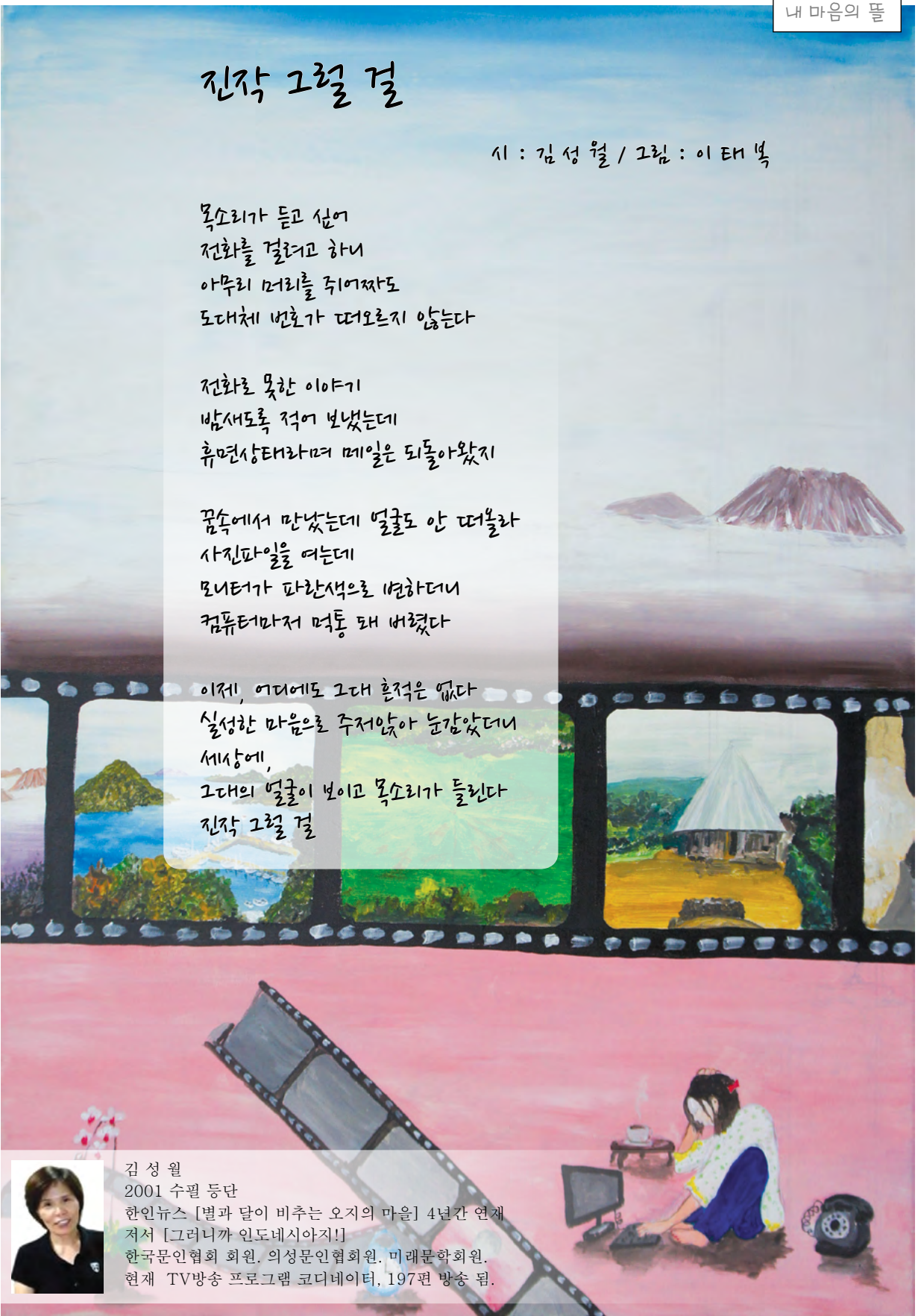
시 : 김성월 / 그림 : 이태복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려고 하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대체 번호가 떠오르지 않는다

전화로 못한 이야기
밤새도록 적어 보냈는데
휴면상태라며 메일은 되돌아왔지

꿈속에서 만났는데 얼굴도 안 떠올라
사진과일을 여는데
모니터가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컴퓨터마저 멍통 돼 버렸다

이제, 어디에도 그대 흔적은 없다
실성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눈감았더니
세상에,
그대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
진작 그릴 걸



김성월
2001 수필 등단
한인뉴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4년간 연재
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지!]
한국문인협회 회원, 의성문인협회원, 미래문학회원.
현재 TV방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97편 방송 됨.





인도네시아 대표 키워드 ‘루꾼(Rukun)’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 ‘인도네시아’ 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헛갈린다 ” 라고 현지에서 사는 동포들이 흔히 말한다. 한국에 ‘빨리 빨리’ 가 있다면 중국에는 ‘만만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루꾼(rukun)’ 이 있다.

20여년 전 필자가 일하던 공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당시 업무 경력이 그리 많지 않았던 필자는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속하게 노사문제를 종결시키려고 조바심을 내며 시위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설득하고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다.

지난 1990대 초반부터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다년간 인도네시아 문화인류학 분야를 연구했던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강의를 듣고, 현지 문화인류학에 대한 몰이해를 자책하면서 그때 이 분야에 다소 이해가 있었다면 좀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칼럼은 지난 7월 3일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이 주최한 김형준 교수의 ‘인도네시아 문화의 오해와 이해’ 강의와 필자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문화의 핵심인 루꾼을 정리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종종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이 신통치 않다. 하물며 외국인이 다문화화를 넘어서 복잡다단한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가 ‘화목한, 융화하는, 일치하는’ 등의 뜻을 나타내는 ‘루꾼’ 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인도네시아의 윤곽을 어렵잖아 하게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형준 교수에 따르면 화합을 뜻하는 루꾼은 표면적인 화합을 의미하며 진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루꾼은 크게 4개 단어로 함축되는데, △슬라맛(selamat) △와양(wayang) △고똥로용(gotong royong) △무샤와라(musyawarah) 등이다.

아랍어가 어원인 △슬라맛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측된 방식대로 흘러가고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사람이 느끼는 이상적인 상태다. 이는 ‘어제의 상태가 오늘에도 그대로 지속됨’ 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는 관계의 지속’ 을 의미한다. △인형극 와양은 인도의 2대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를 통해서 선과 악을 묘사한다. 와양에서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으며, 악이 있어야 선이 존재한다는 상대주의적 종교관을 보여준다. △호혜성을 뜻하는 고통로용은 서로 주고받는다는 다소 계산적인 상부상조이다. △합의와 협의라는 의미인 무샤와라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간 동의를 끌어내는 다자간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루꾼은 실질적인 화합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갈등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루꾼의 목표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한 이타적인 상태가 아니다. 루꾼을 유지하려면 각 개인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바사람들의 생활규범인 *끄자웬* (kejawen)과 유사하다. 이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품위 있는 언행이라 여긴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표리부동을 인정한다. 표리의 일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이런 문화에 맞닥뜨렸을 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샤와라는 신라시대 만장일제도인 화백회의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무샤와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회의하는 모습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의가 시작되면 참석자들이 가벼운 농담과 간식을 즐기면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회의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하고 모든 사람이 발언이 끝났다고 간주되어야 마무리에 들어간

다. 때때로 무샤와라는 상상하지 못할 엉뚱한 결론을 낼 때도 있다. 1999년 총선에서 메가와띠 수 까르노뿌뜨리가 총재로 있는 투쟁민주당(PDIP)이 최다 득표를 해 제1당이 되어 메가와띠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헌법 제정과 정·부통령을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협의회(MPR)는 투표일을 연기하면서 서까지 장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예상을 뒤엎고 압두라흐만 와히드 국민각성당(PKB) 총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이변을 냈다.

인도네시아공화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가통합(NKRI)을 최대 과제로 삼아왔고, ‘다양성 속의 통일’을 상징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인 *판짜실라* (Pancasila)를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지키고 있다. 특히 수하르토 대통령의 집권기인 신질서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펴나가면서 국가통합을 위해 자바사람의 생활양식으로 대변되는 루꾼이 강조되고 자바사람들을 다른 섬으로 활발하게 이주시킴으로써 자바문화가 인도네시아 전체의 문화로 자리잡게 됐다.

우리의 ‘빨리 빨리’와 자바어로 ‘알론 알론 아살 클라폰(Alon alon asal kelakon), 천천히 그러나 확실’이라는 생활문화는 크게 다르다. 루꾼은 한국의 사랑이나 친근함을 나타내는 감정인 정(情)과 다소 배치된다. 이곳 한인들이 ‘루꾼’과 ‘한박자 천천히’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통해 좀더 성공적인 사업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인 근로자의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지위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국적에 상관없이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원칙이며, 법에 정한 모든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년에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 해고금(퇴직금) 문제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직접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노동법은 근본적으로는 사용자에 비해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고용관계와 사규로 다스리는 고용관계의 단계는 수직관계로 보며, 단체근로 협약서로 약정된 고용관계는 수평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사회는 모든 고용관계는 수직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은 아직은 사용자측에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근로자측에서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으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측을 부정적인 시각

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거의 해마다 겪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도 전적으로 사용자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인도네시아 근로자처럼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의붓자식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변잡하기 이를 데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법규뿐만 아니라, 기한부 거주허가서 연장을 하려면 매년 이민국에 가서 사진 촬영과 지문을 채취 당하고 있으며, 걸핏하면 강제 출국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동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근로 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며, 분쟁 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법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면서 인도네시아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제반 노동법 규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1.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법적인 도구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를 규정한 법적인 도구는;

- 1.1. 근로자와 회사 간에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서 (Perjanjian Kerja),
- 1.2.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동의와 노동국의 승인을 얻어 발효하는 사규 (Peraturan Perusahaan),
- 1.3. 회사 내에 10명의 근로자가 결성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 (Perjanjian Kerja Bersama),
- 1.4. 노동법 (Hukum Perburuhan)이다.

*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과 상이한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한 4가지 법적인 도구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법적인 도구가 우선적인 적용된다는 노동법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이 있는 법적 도구의 보호를 받게 된다. “예” 를 들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회사에게 발급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IMTA)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까지인데,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14년 6월 30일에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면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들게 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신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번잡한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쳐 고용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 외국인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고용주/사용자의 자격은 개인이 아닌 반드시 단체 혹은 조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에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법적 신분은 회사, 정부 기관, 국영 기업체, 재단 혹은 다른 형태의 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직위나 직책에 대하여 노동법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사람과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있으며 그 의무와 권리도 당연히 다르나 법적인 스폰서는 둘 다 회사이다.





3.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계약

3.1. 민법상 과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의 종류
인도네시아 민법은 근로 계약을 통상의 근로 계약 과 하청 근로 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의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일해주고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보통의 근로계약을 뜻하고, 하청 근로 계약이란 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약정한 일을 해주는 근로 계약을 뜻한다(*인도네시아의 근로관계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에게는 노동법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민법의 고용 관계에 관한 조항을 읽고 이해하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노동법에는 산업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청 근로 계약은 빠져 있고, 근로 계약을 (i), 무기한 근로 계약과 (ii) 기한부 근로 계약, 두 종류의 근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3.2. 무기한 근로 계약과 기한부 근로 계약의 차이

3.2.1. 무기한 근로 계약은 55세 정년 퇴직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이나, 기한부 근로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다.

3.2.2. 무기한 근로 계약은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으나, 기한부 근로 계약은 지속성이 있는 사업장에 적용을 금하며, 건설 현장이나 농장처럼 시험성이 있는 사업장과 시제품을 생산하는 시험성이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을 허용한다.

3.2.3. 무기한 근로 계약에 대한 해약은:

- (i). 근로자가 조건을 달지 않고 자진 사퇴하거나,
- (ii).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 (iii). 근로자가 법정 정년년령에 도달했거나,

(iv). 법원의 판결에 의하나,

기한부 근로 계약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

3.2.4. 무기한 근로 계약은 견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최장 3개월의 견습을 허용하나 기한부 근로 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불허한다.

3.2.5. 무기한 근로 계약을 해약 시에는 해고금, 주택 및 의료비 혹은 장기 근속금등 근로자에게 배상이 뒤따르나, 기한부 근로 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시에는 해고금, 퇴직금, 주택 및 의료비 혹은 장기 근속금 등 배상이 없다.

3.2.6. 무기한 근로 계약이 상기 3.2.3.항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 될 시에는 특정한 시기까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기한부 근로 계약이 기간 만료 전에 상호 간에 해약 합의 없이 해약이 되는 경우에는 해약사유 귀책자는 근로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한 임금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만큼 사용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근로자가 태만하거나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무기한 근로 계약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3.3.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기한부 근로계약에 속한다.

1회에 최장 1년 취업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 제한부 연장을 해주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의 본질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맺은 근로 계약서는 기한부 근로계약으로 구분이 된다.

4.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

4.1. 서면 근로계약서를 꼭 체결한다.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준비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서이다. 모든

근로 조건을 가능한 한 소상하게 일일이 기재하고 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한다. 근로 조건은 소상하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더 좋다.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기록하고, 의무를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과 권리가 침해됐을 때의 보상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지키게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아울러서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만들어 내미는 근로 계약서에 그냥 서명하기 보다는, 근로 계약 내용을 정밀 검토해서 그 내용을 100%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서명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확실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4.2.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 허가서 유효 기간이 근로 계약 기간으로 간주된다. 취업 허가서 유효 기간이 최장 1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용자 보다는 근로자가 더 불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구두로 3년 계약으로 합의하고 와서, 1년 유효한 고용 허가서를 받아 1년 근무 후 해고 했을 때에, 근로 계약 기간이 기재된 근로 계약서 보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권리 보상은 차이가 심하다. 전자는 계약 기간 3년에서 이미 근무한 1년을 뺀 잔여 근로 계약 기간 2년간의 임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후자는 잔존 기간 2년간의 임



금을 사용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법적 방법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 계약은 상기 위에서 설명한대로 노동법 상 기한부 근로계약이기 때문이다.

4.3. 고용허가서(IMTA)를 받은 후에 근무한다. 바쁘다는 이유 혹은 현지인 교육 기금 및 근로 소득세를 절세하려는 의도로 취업허가서를 내지 않고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그냥 방문 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체스럽지 못한 선택이다 두 말할 여지 없이 범법 행위이며 적발되면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서 없이 고용에 대하여, 최하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에 처하거나 최소 1억에서 최고 4억 Rupiah의 벌금 혹은 동시에 상기한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 상의 처벌 이외에 또 자동으로 출입국 관리법 상의 체류 허가 목적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으므로 불법 취업은 위험 부담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5. 근로 계약서와 고용 허가서 어느 쪽이 우선인가?

위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노동법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항상 우선한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고용 허가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근로 계약서가 유효하며, 반대로 고용 허가서 내용이 근로 계약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고용 허가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면,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고용 허가서는 1년이면 근로 계약서가 유효하다.

6. 불법 취업자는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적법 취업이다. 고용 허가서 없이 근무하고 몇 달씩 임금을 못 받아도 법에 호소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법에 알려지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지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고, 불법 취업을 피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7.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시라도 출국시킬 수 있으며, 취업 허가서 내용과 다르게 근무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출국 사유에 해당된다.

7.1. 외국인 근로자 출국 조치

외국인 근로자가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는 하시라도 근로자를 출국시킬 수 있다. 출입국은 근로 계약과 상관없이 출입국 관리법으로만 적용되므로 사용자/스폰서가 지방 이민국에 출국 허가(Exit Permit Only/EPO)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구애없이 EPO가 떨어지며 근로자는 EPO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 출국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권과 KITAS(기한부 거주 허가서) 등 원본을 사용자에게 맡기지 말고 근로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 강제 출국 조치

근로자가 고용 허가서와 다르게 근무하는 것이 노동국 혹은 이민국 직원에게 적발되면 체류허가 목적 위반으로 구분돼 강제 출국 처벌 사유에 해당된다. 고용 허가서 상의 내용과 실제 간에, 사용자의

명의를 다르거나, 근무지가 다르거나, 하는 일이 다르거나, 주거지가 다르면 모두 이에 해당된다.

8.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책임

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수속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노동법상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결된 근로자를 본국으로 보내 줘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다.

9.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 시 대사관의 역할

대사관은 주재국에 대하여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주재국의 실정법과 관행의 태두리 내에서 주재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국민을 정당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간에 분쟁 발생 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노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대사관은 분쟁에 대하여 여하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대사관의 기본 입장이므로,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 시에는 자국민보호 차원 수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국인 해커단 오보 관련 조치사항

1. 7월 23일 일부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프라보워 진영의 메라푸티 선거대책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37명의 해커단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4백만 표를 조작하였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사관은 동 기사를 인지한 즉시 이를 보도한 매체를 포함, 주재국 주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여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한편, 7월 23일 오후 대사관 담당관은 프라보워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프라보워 캠프의 발언에서 비롯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외국인 커뮤니티인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한-인도네시아 양국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프라보워 진영에서 상기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선거대책본부측은 우리 대사관의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동포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어 강사(한국인) 모집

1. 모집인원 : 시간강사 약간0명
2. 담당업무 : 인도네시아인 및 현지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
(9월 개강 ~ 12월 중 15주 일정)
3. 응시자격가. 인도네시아 지역 거주 한국인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험이 최소 1년 이상다. 강의시 인도네시아로 설명 가능한 수준의 현지어 구사자 우대라.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자 우대마. 연령 제한 없음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7.8(화) ~ 8.3(일)
-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inibean@gmail.com
(1) 제목을 “한국어강사지원+성명” 으로 작성하여 제출
(2)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스캔 후 첨부과일로 송부
5. 심사일정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가. 서류심사 발표: 2014.8.7(목)
나. 면접심사: 2014.8.11(월)
디. 최종합격자 발표: 2014.8.12(화)
6. 문의
한국문화원T: 021-2903-5650
Email: jinibean@gmail.com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리바란이 끝나고 가사 도우미나 보모들이 돌아오지 않아 분주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드라마 참 좋은날에서 혜원과 동석 부부의 감쪽한 신혼살이에... 미소를 짓는데요
소심은 영춘을 혼자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동희에게 같이 나가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정을 때려 합니다.

이에 투덜거리는 동희에게
Kau merajuk?
너 빠진 거니?
라고 합니다.

가사 도우미나 보모들과 지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오해가 쌓이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투정도 부리고 때론 빠지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 토라지기도 하고

문장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엷잖은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Rajuk/Ambek/Comel/ Gerutu/Omel/Rewel이 종종 사용됩니다.

1. **Merajuk** (kata kerja aktif(V) 어근은Rajuk 이다.)

Me.ra.juk = menunjukkan rasa tidak senang (dng mendingkan, tidak mau bergaul) 빠짐(토라지다의 경상도 사투리).토라지다 (마음에 들지 않아 어울리고 싶지 않고, 조용히 있는) 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 Dia hanya tidur dan **merajuk** seharian setelah suaminya pulang tanpa membawa uang.

그는 남편이 퇴근할 때 돈을 가져오지 않자 하루 종일 **토라져서** 잠만 잤다.

2. **Mengambek** (kata kerja aktif(V) 어근은 ambek으로 말레이 자카르타 어이다. Me.ngam.

bek = agak marah; merajuk. Keterangan: Mengambek = merajuk 과 토라지다/ (약간 화가나서) 뽀루통해 지다 와 같이 쓰이며 주로 구어체로 사용된다.

- Anakku **mengambek** tak mau makan karena aku tak membelikannya mainan.
- 장난감을 사주지 않자 아이는 **뽀루통해** 저서 밥을 먹지 않는다.
- Jangan suka mengambek kalau kau tidak mau cepat tua.

3. **Mencomel** (kata kerja aktif (V) 어근은 comel이다.)

Men.co.mel = mengeluarkan perkataan yg tidak keruan maksudnya (krn marah, mendongkol, tidak suka, dsb); menggerutu; mengomel; bersungut-sungut.

궁시렁대다/투덜대다처럼 빠지거나 투덜거림을 입으로 표현 하거나 거친 행동으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

- Dia membanting pintu dan keluar sambil **mencomel**

그는 **투덜대며** 문을 차고 나갔다.

- Kau mencomel tiada henti saat berurusan dengan orang yang tidak sependapat denganmu.

당신은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궁시렁 댁니다.

4. **Menggerutu** (kata kerja aktif (V) 어근은 gerutu이다.)

Meng.ge.ru.tu = mengomel; mencomel.

궁시렁대다라는 주된 표현으로 주로 구어체로 사용된다. 불평 불만...심기가 불편함을 궁시렁대며 속으로 표현 할 때 사용된다.

- Dia jadi sering **menggerutu** di kantor setelah tahu gajinya hanya naik sedikit tahun ini.
- 올해 급여 인상폭이 적은걸 알고 난 후 종종 궁시렁 댁다.
- Orang itu tak pernah menggerutu sedikitpun tiap kali atasannya menyuruh.

5. **Mengomel** (kata kerja aktif(V) 어근은 omel이다.)

Me.ngo.mel = marah dng banyak mengeluarkan kata-kata; mencomel; bersungut-sungut dan menggerutu.

불평하다/투덜대다라 mengurutu와 근접한 표현으로 남의 흉을 보거나 잔소리를 직접 타인에게 표현할 때 사용된다.

- Kebanyakan wanita suka **mengomel** tidak jelas kepada suaminya.

대부분의 여자들은 명분 없이 남편에게 투덜댄다 (잔소리를 한다)

- Ibuku memang sering mengomel, tetapi tidak lama kemudian tersenyum lagi dengan orang yang dia omeli.

-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를** 자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잔소리한** 사람에게 웃어주신다.

6. **Rewel** (kata keterangan benda (adj.), 어근은 rewel이다)

Re.wel = 1 banyak bicara (suka membantah, tidak mudah menurut, ada-ada saja yg diminta); 2 sukar (tidak mudah mengerjakannya); tidak berjalan lancar (tt mesin

) 주로 아이들이 칭얼대 (징징거림)거나 기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때 (말썽 부릴때) 사용된다.

- Kau sangat **rewel** saat kecil padahal orangtuamu sangat memperhatikanmu.

부모님이 네게 관심을 많이 갖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릴 때부터 징징 거리길 좋아한다.

- Mesin motor ini sering **rewel** meskipun diservis secara teratur.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음에도 오토바이가 자주 **말썽을** 부린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 요나손 저/임호경 역 | 열린책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요나스 요나손 두 번째 소설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신작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가 출간되었다. 이번 신작은 2013년 스웨덴에서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26개국에 판권이 팔리고 전 세계 판매 부수 150만 부를 돌파했다. 소설은 세상을 지배하는 바보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바보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번 신작에서 요나손은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십분 발휘하면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하고도 불합리한 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은근하고도 통렬한 풍자를 보여 준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저/김희정 역 | 부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학 지식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이 오랜만에 책을 냈다. 30여 년간 유일한 경제학적 진리로 군림하면서도 금융 위기에 아무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소개한다. 간략한 경제사를 정리하고 9가지 주요 경제학과를 소개하여 각 학파별 장단점을 설명했다. 9가지 학파에는 신고전주의를 비롯해 고전주의, 마르크스학과, 오스트리아학과, 케인스학과, 슈페터 학파, 개발주의, 제도학과, 행동주의 등을 포함했다.



대한민국 치킨전

정은정 저 | 따비

백숙에서 치킨으로 한국을 지배한 닭 이야기

언제 밥 한 끼 어때, 보다는 언제 치맥 어때가 익숙해진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 책은 치킨의 사회학을 지향한다. 농업사회학을 전공한 저자는 치킨이 어떻게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호로 자리잡았는지 역사적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현대 치킨산업의 제조 및 유통을 그려냈다. 결론적으로 정은정 저자는 치킨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음식이지만, 가장 슬픈 음식이라고 말한다. 이는 치킨산업에 존재하는 어두운 면 때문이다.

청춘의 낙서들

도인호 저 | 엘리스

이 시대 청춘의 솔직한 고백

도인호는 스펙 쌓기에 매진하는 여느 20대와는 달리, 낙서를 수집하는 청춘이다. 스스로를 ‘잉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청춘의 낙서들』에 담긴 낙서들의 빛깔은 다채롭지만 이 책의 지은이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 청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공식을 꼭 따라야 할까? 낙서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이 이 책의 지은이를 움직였듯 『청춘의 낙서들』이 또 다른 청춘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기대된다.



따돌림 없는 교실

비비언 거신 페일리 저/신은수 역 | 쌤터

잘못된 교육의 결과, 따돌림

왕따, 따돌림 현상. 따돌림이 문제가 됐을 때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따돌림 당한 아이는 누구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다. 이 책은 따돌림은 한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 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잘못은 어른의 잘못이고, 결국 고쳐야 할 주체도 어른인 쌤이다.



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

김이율 저 | 지식너머

어른이 되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

카피라이터 출신인 김이율 저자가 새롭게 쓴 책. 대한민국의 불안한 현실에 안타까워 하면서 작고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운다. 독자와 공감하기 위해 김이율은 먼저 자신도 고단한 밥벌이에 지쳐 무기력해졌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시선과 다른 태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노력했던 잔잔한 에피소드를 책에 담았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4년 한인회 임원잔조금 명단

8월5현재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19,973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2014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2014	20,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4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2014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4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4	5,000	
16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INHWA INDONESIA	2014	5,000	
17	한인회 자문위원단 의장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4	2,000	
18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19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4	1,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4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4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웅	코린도 장학재단	2014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4	1,000	
30	한인회 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4	1,000	
31	한인회 이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SHOP	2014	1,000	
32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4	1,000	
33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4	1,000	
34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4	1,000	
35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4	1,000	
36	한인회 이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4	1,000	
37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4	1,000	
38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T. TRISTAN RESOURCES	2014	1,000	
39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4	1,000	
40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41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4	1,000	
42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4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액	
					USD	IDR
43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4	1,000	
44	한인회 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4	1,000	
45	한인회 이사	서 영 룰	PT. PRATAMA ABADI	2014	1,000	
46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IL JAYA	2014	1,000	
47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48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4	1,000	
49	한인회 이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4	1,000	
50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BALARAJA	2014	1,000	
51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52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53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54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55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4	1,000	
56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57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4	1,000	
58	한인회 이사	이 창 훈	PT. KIDECO JAYA AGUNG	2014	1,000	
59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4	1,000	
60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61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62	한인회 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2014	1,000	
63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64	한인회 이사	황 윤 흥	자카르타경제일보사	2014		11,675,000
65	확인불가, 연락요망	Hong	KOGA (4월24일 HANA BANK)	2014	1,000	
총 금액					\$168,973	Rp11,675,000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민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민,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민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I HANA BANK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이 지 현	2014	6,000,000	
2	김 주 철	2014	3,000,000	
3	이 종 후	2014	1,000,000	
4	백 승 래	2014		200
5	손 용	2014	300,000	
6	임 성 용	2014	300,000	
7	이 승 민	2014	300,000	
8	김 재 민	2014	300,000	
9	신 기 업	2014	300,000	
10	강 희 중	2014	300,000	
11	강 덕 재	2014	3,300,000	
12	김 원 모	2014	300,000	
13	권 영 동	2014	300,000	
14	김 일 태	2014	300,000	
15	이 소 왕	2014	300,000	
16	이 완 주	2014	300,000	
17	이 효 욱	2014	300,000	
18	정 재 호	2014	300,000	
19	최 건 호	2014	300,000	
20	최 문 중	2014	300,000	
21	홍 석 진	2014	300,000	
22	홍 훈 섭	2014	300,000	
23	김 섭	2014	300,000	
24	김 종 주	2014	300,000	
25	오 세 윤	2014	300,000	
26	김 현 동	2014	300,000	
27	백 승 명	2014	300,000	
28	윤 석 환	2014	300,000	
29	이 기 열	2014	300,000	
30	이 정 호	2014	300,000	
31	최 호 영	2014	300,000	
32	황 재 규	2014	300,000	
33	한 기 환	2014	300,000	
34	배 희 윤	2014	300,000	
35	이 봉 규	2014	300,000	
36	이 원 만	2014	300,000	
37	박 정 호	2014	300,000	
38	양 영 연	2014	300,000	
39	배 영 태	2014	300,000	
40	최 철 우	2014	300,000	
41	김 영 수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42	이 일 하	2014	300,000	
43	이 수 진	2014	300,000	
44	장 방 식	2014	300,000	
45	조 규 철	2014	300,000	
46	최 양 기	2014	300,000	
47	엄 종 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 세 명	2014	300,000	
50	김 세 형	2014	300,000	
51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2	김 도 상	2014	300,000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4	김 영 울	2014	300,000	
55	김 창 근	2014	300,000	
56	김 대 근	2014	300,000	
57	조 용 재	2014	300,000	
58	이 재 원	2014	300,000	
59	ROTC 김 수 용	2014	300,000	
60	ROTC 김 흥 규	2014	300,000	
61	ROTC 최 형 옥	2014	300,000	
62	ROTC 김 광 석	2014	300,000	
63	ROTC 김 기 주	2014	300,000	
64	ROTC 목 의 수	2014	300,000	
65	ROTC 김 성 주	2014	300,000	
66	ROTC 이 시 현	2014	300,000	
67	최 우 범	2014~2018	1,500,000	
68	신 규 태	2014~2015	600,000	
69	김 영 필	2014	300,000	
70	엄 정 호	2014		300
71	PT. OCEAN ASIA IND.	2014	2,000,000	
72	김 종 헌	2014	300,000	
73	임 성 필	2014	300,000	
74	이 지 완	2014	300,000	
75	강 영 균	2014	300,000	
76	이 현 식	2014	300,000	
77	서 준 형	2014	300,000	
78	김 경 국	2014	300,000	
79	김 우 재	2014	300,000	
80	강 희 중	2014	300,000	
81	박 현 식	2014	300,000	
82	김 성 수	2014		990
총 금액			Rp40,200,000	\$1,490



긴급전화번호

경찰 범죄 및 도난 신고	POLICE (Polisi)	112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مْ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참피온



환전
송금업무
높은환율

Tel: (021) 4585 1158
HP: 0815 114 14 119
주소: Ruko Inkopal Block C No.75
Kelapa Gading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리틀랩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옥)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옥)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연)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김인환)	0813 1572 188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bn.net.id, doowangjkt@gmail.com





연합교회	272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짜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짜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짜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짜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짜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가시서울(버가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가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짜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짜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짜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짜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짜까랑)	8983	6047
아리랑(짜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짜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짜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짜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짜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하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등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아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쎬드라아트스쿨(리포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 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갈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서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깔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